

# 고흥고 신록 '신기록의 사나이'

## 전국역도선수권 61kg급 용상 163kg 번쩍 '한국신기록'

전병관 이후 첫 '고교생 한국신'

인상 학생신기록·합계 주니어신기록

한국 역도 경량급 유망주 신록(18·고흥고)이 남자 역도 61kg급 용상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신록은 최근 경남 고성 역도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20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남자 고등부 61kg급 결선에서 인상 127kg, 용상 163kg, 합계 290kg을 들어 우승했다.

또래 중에는 신록의 경쟁 상대가 없었다. 용상에서 162kg인 한국 신기록을 1kg 더 들어 올렸다. 같은 체급 실업팀 형들도 못한 바벨을 가장 먼저 들어 올리며 한국 신기록을 새로 썼다.

이날 2위를 차지한 정현목(전남체고)의 합계 기록은 242kg(인상 105kg, 용상 137kg)이었다.

신록은 순위가 아닌 기록과 싸웠다.

용상 3차 시기에서 신록은 한국 기록인 163kg을 들었다.

국제역도연맹은 2018년 11월 열린 세계역도선수권대회부터 새로운 체급 체계를 만들었고, 세계 기준기록을 발표했다.

대한역도연맹도 한국기준기록표를 만들었고, 한국 남자 61kg급 용상 한국기록은 162kg으로 정했다.

같은 체급 실업팀 선배들도 아직 실전에서는 들지 못한 용상 163kg을 고교생인 신록이 들었다.

신록은 인상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한국 학생기록(종전 125kg)을 2kg 경신했고, 합계에서는 자신이 지난달 7일 실업선수권에서 달성한 한국 주니어기록(종전 283kg)을 7kg이나 넘어선 신기록을 작성했다.



신록이 2020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남고부 61kg급에서 바벨을 들어올리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을 작성했다.

신록의 고교생 한국신기록은 88서울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전병관이 전주고 시절 세운 기록 후

처음이며,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도 고교시절 세우지 못한 대기록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라파엘 나달이 20일 열린 남파프로테니스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단식 준준결승에서 디에고 슈와르츠만에게 점수를 내준 뒤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 무너진 '흠신' 나달

## 클레이코트서 1년 4개월만에 패배...로마대회 8강서 탈락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약 1년 4개월 만에 클레이코트 경기에서 패했다.

나달은 2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남파프로테니스(ATP)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총상금 346만 5045유로) 대회 6일째 단식 준준결승에서 디에고 슈와르츠만(15위·아르헨티나)에게 0-2(2-6 5-7)로 졌다.

클레이코트에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 '흠신'이라는 별명이 있는 나달이 클레이코트 경기에서 패한 최근 사례는 지난해 5월 스페인 마드리드 마스터스 준결승에서 스테파노스 차치파스(6위·그리스)에게 1-2(6-4 2-6 3-6)로 진 것이다.

나달은 이날 경기 전까지 상대 전적 9전 전승으로 슈와르츠만을 압도했으나 10번째 맞대결에서 처음 패했다. 또 최근 클레이코트 14연승 행진도 중단됐다.

슈와르츠만은 4강에서 데니스 샤프발로프(14위·캐나다)를 상대한다.

이날 나달을 물리친 슈와르츠만은 키 170cm로 투어의 대표적인 단식 선수지만 2018년 세계 랭킹

11위까지 올랐던 선수다.

나달은 키가 185cm로 슈와르츠만보다 15cm가 크고, 슈와르츠만은 이번 대회 3회전에서는 키 196cm의 장신 선수 후베르트 후르카치(31위·폴란드)를 2-1(3-6 6-2 6-4)로 물리치고 8강에 오른 바 있다.

슈와르츠만은 공격 성공 횟수 31-21로 우위를 보였고, 실책은 17-30으로 나달보다 13개나 적었다.

나달이 서브 시속 190km로 161km의 슈와르츠만보다 훨씬 빨랐고, 왼손잡이 특유의 각도 깊은 샷으로 슈와르츠만을 괴롭혔지만 슈와르츠만은 그럴 때마다 부지런히 쫓아가 공을 받아내며 나달의 실책을 유도했다.

나달은 2세트 게임스코어 3-4, 4-5 위기에서 연달아 상대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위기를 넘겼지만 5-5에서 내준 자신의 서브 게임은 끝내 만회하지 못했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는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도미니크 코피(97위·독일)를 2-1(6-3 4-6 6-3)로 꺾고 4강에 올랐다. 조코비치의 4강 상대는 카스페르 루드(34위·노르웨이)다. /연합뉴스

# 토틸넘 복귀 베일 '우승 정신' 전수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틸넘 홋스퍼로 7년 만에 돌아온 개러스 베일(31·사진)이 친정팀 후배들을 위한 '우승 멘탈리티' 전수에 나선다.

토틸넘은 20일(한국시간) 베일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서 한 시즌 임대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잦은 부상과 부진, 지네딘 지단 감독과의 마찰 등으로 '계류' 신세가 돼 결국 친정팀 임대 신분이 됐으나,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쌓은 우승 경력은 화려하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회, 정규리그 2회, 국왕컵 1회,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3회 등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반면, 토틸넘은 2007-2008시즌 리그컵에서 마지막 우승 경험을 했을 정도로 우승과 인연이 먼 역사를 써왔다.

토틸넘은 2018-2019시즌 모처럼 나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리버풀에 져 아쉬움을 삼키기도 했다.

베일은 토틸넘 홈페이지에 게재된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우승도 해본 적이 없다'는 지론을 펴면서 친정팀에 '우승 멘탈리티'를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베일은 "결승전이라는 상황에 적응하고, 긴장감과 압박감을 다스리는 방법은 결승전에 직접 올라가 봐야 배울 수 있다"면서 "난 마드리드에서 뛰면서 '위닝 멘탈리티', '우승을 하는 법'을 익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승할 수 있다는 믿음을 라커룸 동료들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면서 "올 시즌 늘 최전선에서 싸우며 내가 배워 온 위닝 멘탈리티를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을 떠난 순간부터 나는 늘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었다"면서 "내가 처음 명성을 쌓기 시작한 토틸넘에 돌아오게 돼 기쁘다. 난 여전히 배고프며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무릎 부상을 안고 복귀한 베일은 내달 중순 데뷔전을 치를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친정팀을 향한 애정도 새삼 드러났다. 10대 유망주이던 2007-2008시즌부터 6시즌을 토틸넘에서 뛰며 베일은 이곳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입성,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베일은 "토틸넘을 떠난 순간부터 나는 늘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었다"면서 "내가 처음 명성을 쌓기 시작한 토틸넘에 돌아오게 돼 기쁘다. 난 여전히 배고프며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무릎 부상을 안고 복귀한 베일은 내달 중순 데뷔전을 치를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 광주시체육회, 32개 공약 차질없이 추진한다

## 공약 추진 보고회 열고 이행사항 점검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8일 중회의실에서 '민선 초대 공약 추진 보고회'를 열고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사진>

보고회는 '시민을 위한 열린 체육회'라는 민선 초대 체육회의 가치를 실현하고 경영혁신 등 8개 목표, 안정적 재원 확보 등 32개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평형 사무처장 등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과

민선 공약을 접목해 새롭게 시도할 사업, 보완이 필요한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남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목표로 세웠다. 공약 이행도를 작성하며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민선체육회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평형 사무처장은 "보고회를 통해 부서별 업무를 공유함으로써 민선 초대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선수의 눈높이에 맞게 선진 체육행정을 펼쳐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체육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PGA, 내년부터 샷 느린 선수 특별관리·제재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내년부터 샷이 느린 선수를 특별 관리하며 제재할 예정이다.

20일(한국시간) 골프채널에 따르면 PGA 투어는 19일 선수들에게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개정된 경기 속도 규정을 공지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샷 시간이 유난히 긴 선수들에게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상승적으로 느리게 샷 하는 선수들의 명단을 만들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10개 대회 평균 샷 시간이 45초 이상인 선수들이 '관찰 명단'에 오른다. 관찰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은 매 라운드 샷 할 때마다 60초 제한을 받는다.

제한 시간을 넘기면 '배드 타임' (bad time)에 걸려 경고를 받는다. 두 번째로 배드타임 경고를 받으면 1벌타를 받는다. 이후 배드타임이 누적될 때마다 1벌타씩 추가된다. 해당 선수는 2개 홀을 배드타임 없이 치러야 시간 재기에서 벗어난다.

관찰 명단은 10개 대회 평균 샷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시즌 중에 샷 시간을 단축한 선수들은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관찰 명단은 대중에는 비공개된다.

샷 한 번에 120초 이상 걸리는 등 샷 시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샷 제한 시간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선수들에게 부과하는 벌금도 증액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8~11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PGA 투어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은 지난 4월 RBC 헤리티지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투어 중단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물란
2관	물란
3관	오 문희
4관	기괴괴 성형수
5관	물란, 매지칼: 공주를 웃겨라
6관	물란
9관	태넷
7관 씨네키움	매지칼: 공주를 웃겨라 다만 앞에서 구하소서, 아트랙션 더 렌탈: 소리없는 감시자
8관 씨네키움	기괴괴 성형수 지니어스 독, 뉴 뮤턴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드라마  
알폰스 도데의 '별'  
2020. 9.24.(목) AM 11:00, PM 3: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 프롬나드  
2020. 9. 29.(화) AM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